

학령인구 11년 만에 72% 수준으로 '뚝'

교육부·시도교육감 머리 맞댔다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 진행
인구절벽시대 교육 대응 논의
통폐합·교원 감축 방안 등 주목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들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갖고 인구절벽시대의 교육분야 대응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간 통폐합이나 추가적인 교원 신규 선발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12일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75만명이던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2018년 559만명으로 11년 만에 7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22년엔 505만명, 2030년엔 449만명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해 교육의 양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되는 학

교가 늘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학생이 몰리는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정의 상당수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들의 학생 모집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난이 허덕이는 대학들이 교원 수를 줄이고 과거 '콩나물 교실'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강좌를 늘리면서 교육의 질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학교 조직의 슬림화와 교직원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학들도 기존 신입생 선발 중심에서 직장인 등 성인대상 평생교육 확대나 외국인 학생 선발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정적인 취업으로 인기가 높았던 교육대학의 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와 내년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시행해 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역량진단에서 A·B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C등급은 30%를, D등급은 50%를 줄이게 된다. 최하 E등급을 받으면 교원양성대학 지정이 폐지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회의

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향후 투자방향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조 7000억원에 달하고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구윤철 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한국 경제의 혁신의 위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증가하거나,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한 교육교부금의 비효율적 집행의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기 학생이 감소할수록 학생 한명 한명의 가치는 더 소중해지고, 오히려 지속 교육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면 한정된 교육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명화 서강대 교수팀
자성물질 사이에 숨겨진
자기적 상호작용 첫 발견

서강대학교는 물리학과정명화 교수(사진)팀(유우석 연구원)이 자성 박막층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자기적 상호작용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자연과학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 온라인판 6월 3일자에 게재됐다.

사람들은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많은 수의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각종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해 저장한다. 이런 정보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대용량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서강대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기술로 3차원의 스팬 구조에 정보를 저장해, 기존의 장치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데이터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정명화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자성 다층 박막 사이에 존재하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자기적 상호작용을 밝혔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며 "향후 자성 소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형태의 자성 기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디자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세계사이버대학이 '건강 디자이너' 육성에 적극 나섰다. 3월 사찰음식 특강에 이어 6월에는 흰바리스타 특강을 진행한다.

/세계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 '건강 디자이너' 육성

약용건강식품학과 눈길
동양 '섭생'·서양 '영양' 접목
사찰음식·홈바리스타 특강 등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디자이너' 가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양의 '섭생'과 서양의 '영양' 이론을 접목한 '먹거리 건강관리전문가' 양성에 나서는 세계사이버대학 약용건강식품학과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12일 세계사이버대학에 따르면, 약용건강식품학과는 동서양 이론을 바탕으로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커리큘럼도 ▲동의보감과 건강관리 ▲체질과 음식 ▲약선식품연구 ▲대체요법 등 독특하다.

이 학과 조현주 학과장은 "2015년 통계에서 남자는 79.0세, 여자는 85.2세로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며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 자기 의지대로 삶을 누리려는 욕구가 커진다"고 말했다. '건강 디자이너'를 사회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조 학과장은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특

강도 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자연식으로 주목받는 사찰 음식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사찰음식문화원에서 진행된 실습에서 이론 교육과 함께 냉이두부김밥, 토마토물김치, 느타리버섯구이 등 사찰음식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했다.

특강 참가자들은 사용하는 재료와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구분했고, 인공조미료를 대체하는 천연조미료 사용을 체득했다.

오는 22일에는 '홈바리스타 특강'을 계획 중이다. 강사는 '국경없는 바리스타' 진중섭 대표가 나선다.

지난 2001년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세계사이버대학 약용건강식품학과는 약선식품전문가, 아동요리교육전문가, 티테라피스트, 수지요법 등 학과자 격증과 함께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증의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을 활용해 다양한 진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두고 있다.

약용건강식품학과는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학습 동기부여에 취업·진로 설계까지

삼육대 '찾아가는 학습법 특강' 호평

교육부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일반 특강보다 학생 참석율 높아



보건교육
보건관련학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삼육대 교육혁신단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학습법 특강' 프로그램이 재학생과 교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삼육대에 따르면, 찾아가는 학습법 특강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대학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학과가 희망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학습법 특강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여러 학습법 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강의나 개인일정 등으로 참석율이 저조하자 학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학습법'은 학과 교수가 특강 주제를 설정해 신청하면, 교육혁신단이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강 일정은 정규 교과목 시간을 활용한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해당 교과목과 연계한 학습법 코칭이 가능하고,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혁신단 관계자는 "학습전략능력 및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정 및 시간관리 전략'에 대해 배웠다. 그는 "평소 시간 관리와 공부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유용한 정보를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며 "강사가 직접 수업에 찾아와서 특강을 진행한 점도 편리했다"고 말했다.

교육혁신단은 특강 주제에 따라 졸업생을 강사로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해당 교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학습전략 코칭이 가능하고,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혁신단 관계자는 "학습전략능력 및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학부모 대상 '1대 1 입학상담'

'열린건대' 프로그램 운영
17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2019 열린건대 프로그램은 학부모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3차 열린건대(학부모)는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 내 열린건대 신청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할 수 있다. 이후 4차 열린건대 상담 신청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상담은 내달 8일 진행된다.

건국대 입학처는 아울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2020학년도 수시 입학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과 7월 31일 교내에서 '2020학년도 ASK:U(입학전형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열린건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입학사정관과 1대 1 맞춤 입학상담을 할 수 있으며, 대입 준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입학상담을 원하는 수험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예비 교원 '소프트웨어 지도 역량' 높인다

교대 22곳에 최대 2.6억씩 지원

올해 전체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예비교원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2019년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SWEET)'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직 교사의 직무 연수 외에 교원 양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따라 올해 모든 초등학교의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되

고,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2020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국립초등교원양성기관의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학별 사업비를 최근 확정했다.

대학별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재학생 수, 참여교원 수, 수혜학생 수를 고려해 확정돼 대학별 1억 4000만원 ~ 2억 6000만원 내외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대학은 13일 대구교육대에서 1차년도 우수 사례 공유와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용수 기자